

출판 현장에서의 \TeX 의 활용

이공계열 대학교재 출판을 중심으로

이주호*

2009년 2월 14일



* 국회예산정책처, latex.juho@gmail.com

책 册 Book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준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준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준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준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준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준근 · 강희일

인간의 사상 · 감정 · 지식 · 사항 등을 일정한 목적 · 내용 · 체제에
맞추어 문자 · 글 · 그림 ·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여러 페이지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의
총칭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앞부분 쪽번호: 로마숫자 소문자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현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앞부분 쪽번호: 로마숫자 소문자

책 册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본문/뒷부분 쪽번호: 아라비아숫자, 1로 갱신

```
\documentclass[twoside,b5paper,openright,11pt]{memoir} \mainmatter
\usepackage{amsmath}
\usepackage[bookmarks=true]{hyperref}
\usepackage{mathptmx}
\usepackage[hangulpagestyle, finemath,
microtype]{kotex}
...
\makeindex
\allowdisplaybreaks
\begin{document}
\frontmatter
\tableofcontents
...
\chapter{이것은 첫 번째 장}
\section{이것은 첫 번째 장의 첫 절}
\subsection{이것은 첫 번째 장의 첫 소절}
본문이 위치한다.
...
\chapter{이것은 두 번째 장}
...
\backmatter
\begin{thebibliography}{...} \end{thebibliography}
\printindex
\end{document}
```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편집 vs. 제작

TeX이 관여하는 부분

■ 원고 작성

- 원고지에 직접 쓰기
- 육성으로 녹음해오기
- 컴퓨터로 텍스트 직접 쳐 넣기

No. 08 19

2007년 10월 10일 이후 주가 폭락이 연중 고점에 이르렀던 때였는데, <표 1>에와 같이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3월에 이르기까지 1학기인 주가 폭락이 있었고, 4학기 들어 5월부터 10월까지 3학기인 주가 폭락이 있었고, 주가 폭락의 크기는 2학기(9월)의 폭락과 1학기(3월)의 폭락을 약 2배 정도 것으며, 이전에는 주가 3학기 변동 양상을 예상하는데 주가 3학기(MSCI ASIA 50)의 변동 양상을 예상하는데 주가는 이는 주로 학생 기업들이 전주(5주)의 폭증(급등) 주가를 사실상 예상하는 기준에 맞아 표 1은 주가 폭락을 보인다. 주

<표 1> 주가 3학기 변동률

	2007. 10/10 - 2008. 3/18	2008. 5/19 - 2008. 10/29	2009. 10/10 - 2008. 10/29
코스피 31수	(+) 22	(+) 49	(+) 53
코스닥 31수	(+) 27	(+) 60	(+) 68
MSCI ASIA (50)	(+) 24	(+) 53	(+) 59

- 편집(조판 및 레이아웃 구성)
- 전자출판(pdf, html, dvi, ...)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과연 단점일까 ?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편집자와 저자의 수명을 늘리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4. 상호참조 (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5. 차례 (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편집자와 저자의 수명을 늘리다.

네이피어 (John Napier)의 로그 (logarithm)가 천문학자의 수명을 늘렸다고 하듯이...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합자 (Ligature)

2. 문장부호 매달기 (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3. 글자 확장 (Font Expansion)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합자 (Ligature)

2. 문장부호 매달기 (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3. 글자 확장 (Font Expansion)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합자 (Ligature)

2. 문장부호 매달기 (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3. 글자 확장 (Font Expansion)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매달린 문자 세트

매달린 문자 기능은 단락 경계선 상의 세밀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좌우정렬된 텍스트에서 더 깔끔한 “가장자리”를 생성하기 위해, 단락 경계선 밖으로 인용 부호를 약간씩 밀어내어 “매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용 부호는 텍스트 상자 밖에 놓이게 되더라도 지정한 규칙대로 정렬됩니다.

**“This sentence has a
hanging quotation
mark at the end.”**

맑은 물, 수려한 경관,
와 스릴을 즐길 수 있
는 수한 대지, 최고 봉인
원들의 지구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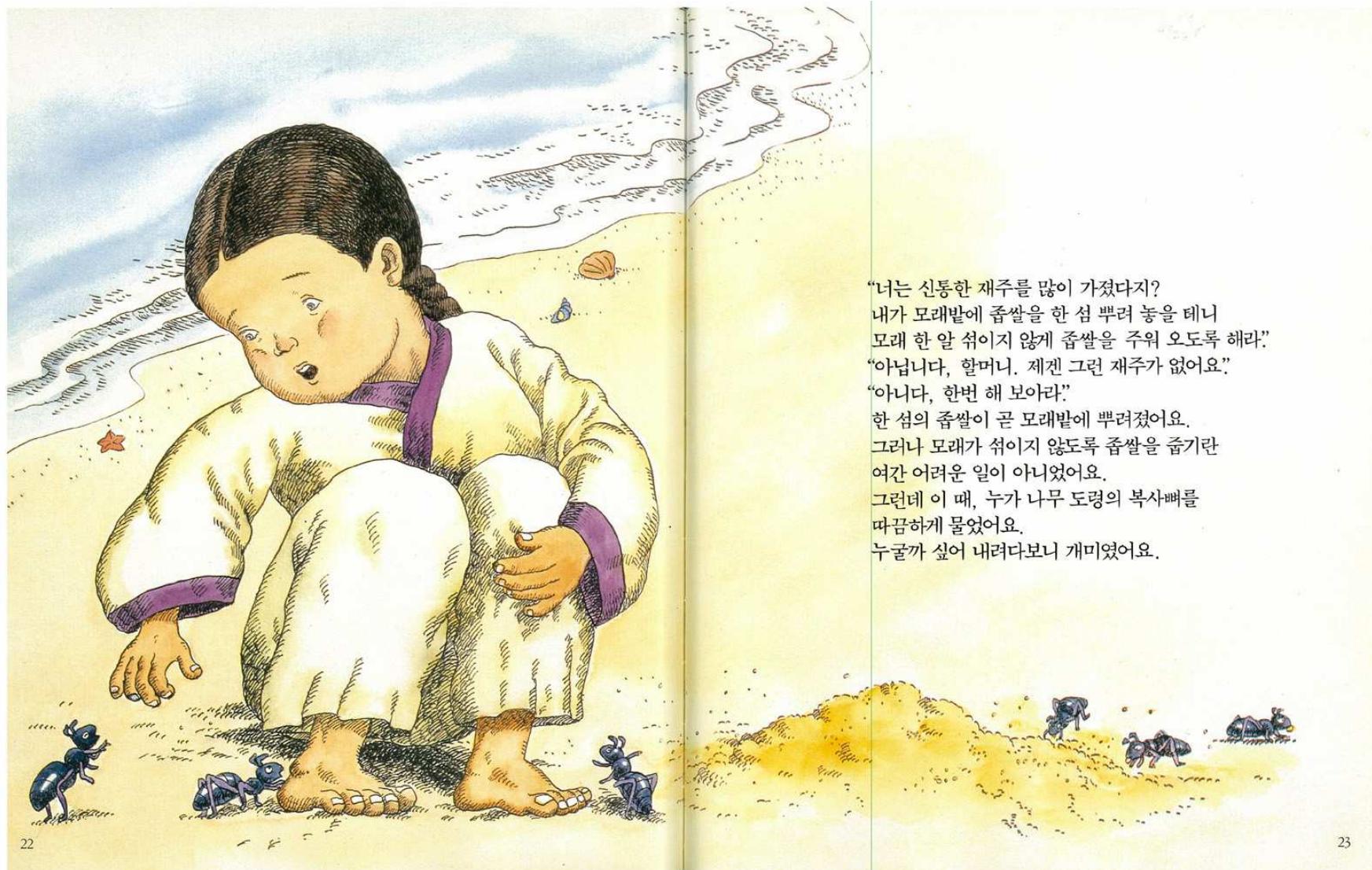
分けるとか、
プロジェクト
ができます。
次のように

텍스트 경계선 밖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 “매달린 문자”에 대한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DFTEX 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분홍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무안한지 안방에 숨어서, 무안하고, 나타나지 아니했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너는 신통한 재주를 많이 가졌다지?
내가 모래밭에 좁쌀을 한 섬 뿐려 놓을 테니
모래 한 알 섞이지 않게 좁쌀을 주워 오도록 해라.”
“아닙니다, 할머니. 제겐 그런 재주가 없어요.”
“아니다, 한번 해 보아라.”
한 섬의 좁쌀이 곧 모래밭에 뿐려졌어요.
그러나 모래가 섞이지 않도록 좁쌀을 줍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때, 누가 나무 도령의 복사뼈를
따끔하게 물었어요.
누굴까 싶어 내려다보니 개미였어요.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Ligature)

Arno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Myriad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Arno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Myriad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TEX의 단점

TEX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E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수식이 미려하고 수식 폰트의 선택 폭이 다양
2. 고급조판 이론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3. 싱글 소싱 (Single source publishing) / 다양한 포맷 (various formats)
4. 수명 연장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종류	판형 (가로×세로)	판면 (가로×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 : 1.2 : 1.2^2 : 1.2^3$
- **스탠리 언원** 안-위-바깥-아래 = $1.5 : 2 : 3 : 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 : 1 : 1 : 1.618 = 3 : 5 : 5 : 8$

판형 및 판면 결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종류	판형 (가로×세로)	판면 (가로×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 : 1.2 : 1.2^2 : 1.2^3$
- **스탠리 언원** 안-위-바깥-아래 = $1.5 : 2 : 3 : 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 : 1 : 1 : 1.618 = 3 : 5 : 5 : 8$

판형 및 판면 결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종류	판형 (가로×세로)	판면 (가로×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 : 1.2 : 1.2^2 : 1.2^3$
- **스탠리 언원** 안-위-바깥-아래 = $1.5 : 2 : 3 : 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 : 1 : 1 : 1.618 = 3 : 5 : 5 : 8$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frac{1}{2}$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frac{1}{2}$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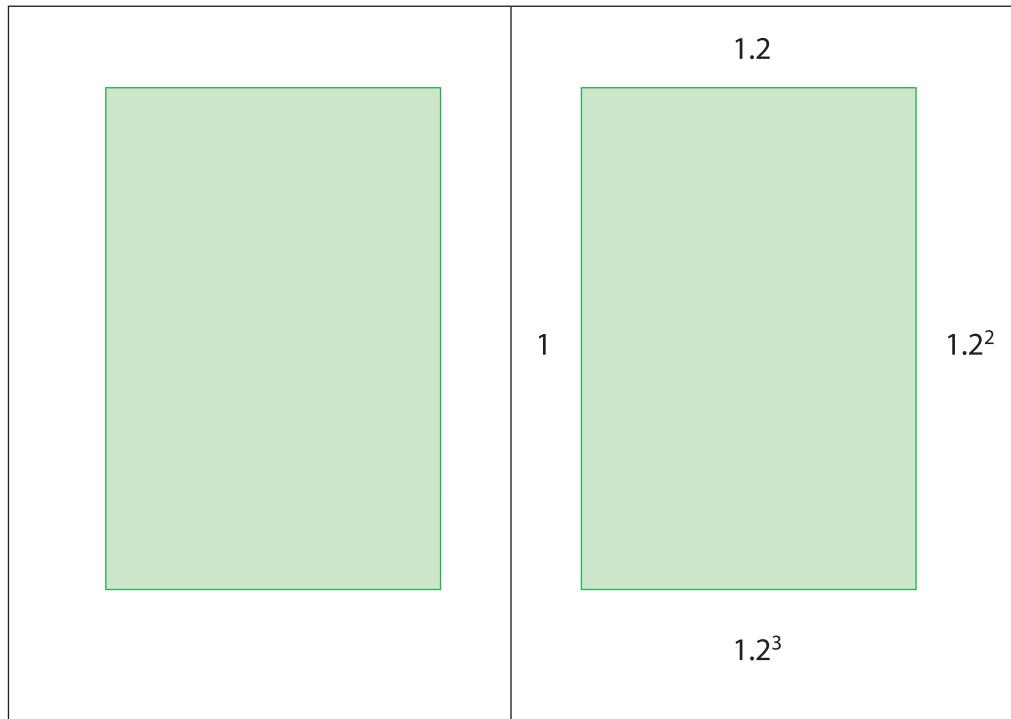
수식 편집

당부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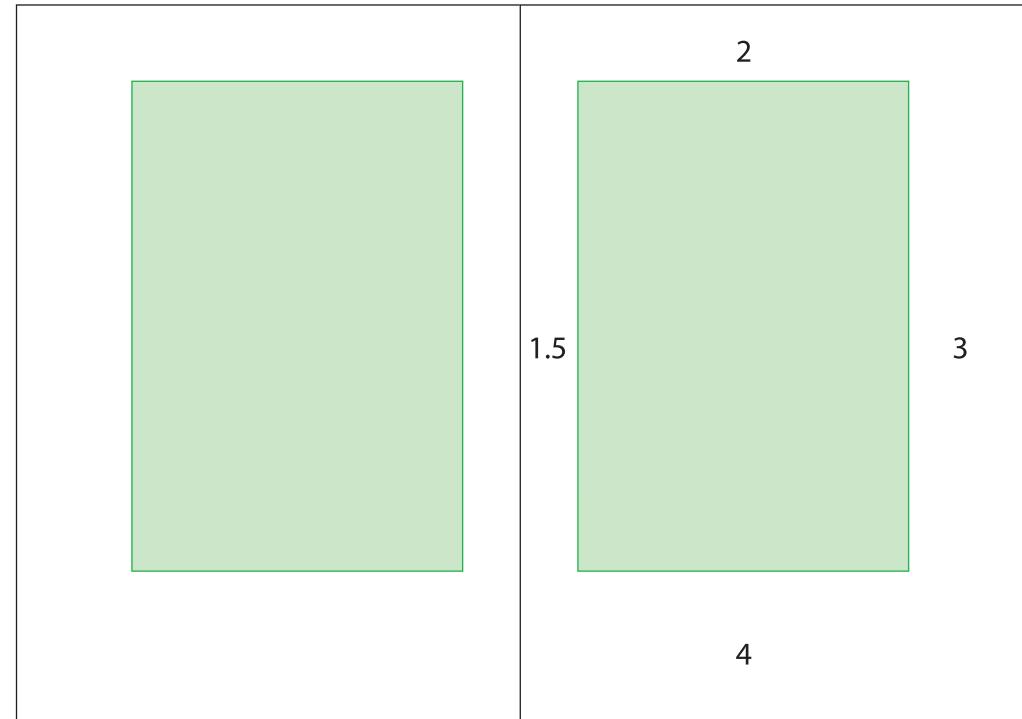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frac{1}{2}$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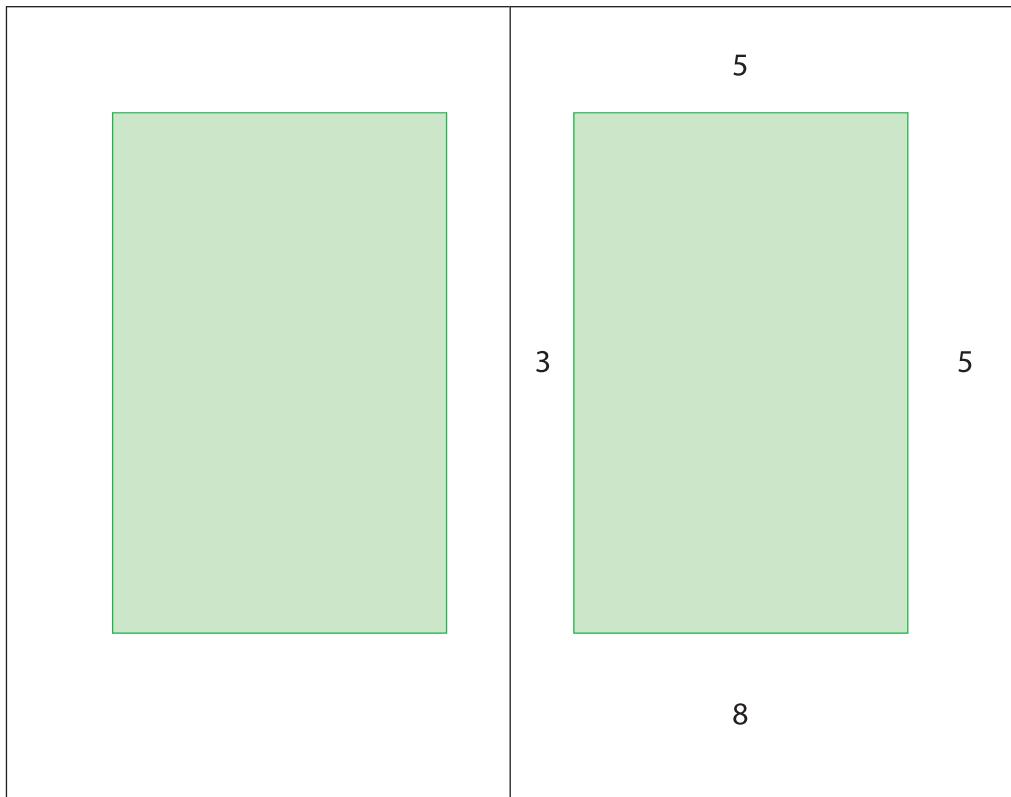


모리스(William Mo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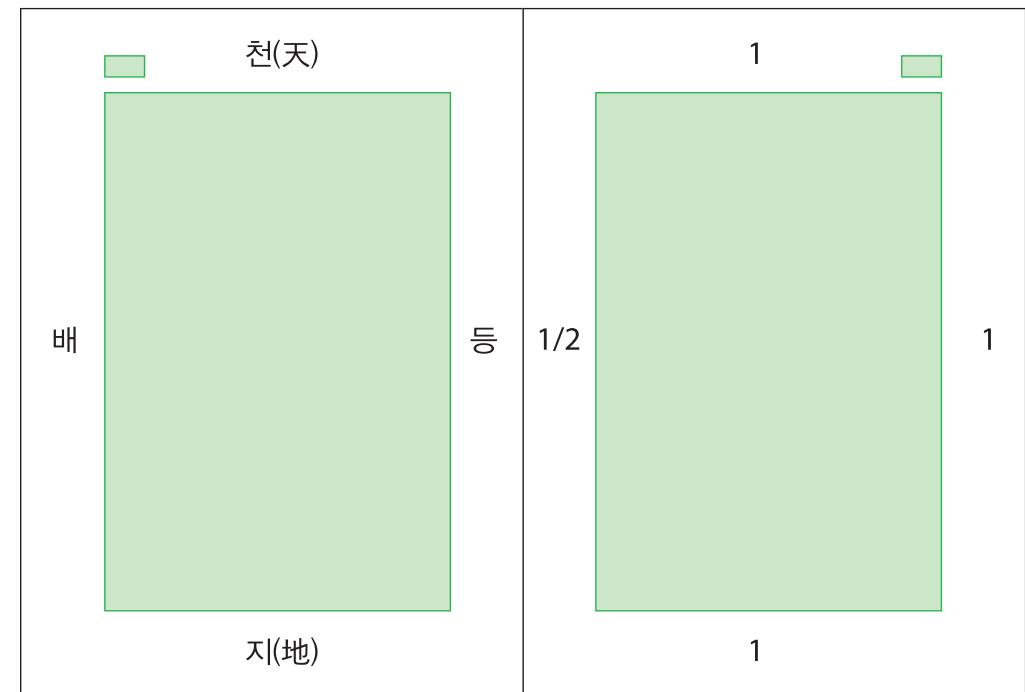


언윈(Sir Stanley Unwin)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황금비 (Golden Section)



이종운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판면 설정에 대해서는 이 geometry 패키지 하나만 기억하자!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52mm,
paperheight=224mm,
textwidth=105mm,
textheight=170mm,
centering }
```

[10]

I 소녀

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흙가분해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당 집이 내 진의가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혼수를 따져 가며 동네외까지 할 절적(切威)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웃매무새는 제법 색시풀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페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암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랑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놨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꽂게 매단져 있었다. 나도 웃고름을 메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들립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려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뺨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 소박이와 호박눈찜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혼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꼬마한 인사를 남기고 껌에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니 뜯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띠었다. 곧떼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11]

나는 아못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련수련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웬걸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민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긴 것이 무언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었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다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자 아니었다. 나을 때 뒤를 훑기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2 소녀

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흙가분해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당 집이 내 진의가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혼수를 따져 가며 동네외까지 할 절적(切威)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았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웃매무새는 제법 색시풀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암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크라운판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74mm,  
paperheight=251mm,  
textwidth=120mm,  
textheight=195mm,  
  
centering }
```

<p>[10]</p> <p>1 소녀</p> <p>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훌가분해졌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점이 내 진위기로 아저씨를 되는 분의 집이다.</p> <p>나는 어둠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이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춤수를 따져 기미 동내외까지 학걸(학姐)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물어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웃매우새는 제법 색시풀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서문서 좀 벌__':	
 집문 앞에는 보라기 누렇게 빼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이들을 뵙고 수인사 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알아 지체한 뒤에, 한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가 점심 대접을 하라는 것이다. 사랑방은 미衾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p> <p>소녀는 미리 준비를 하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웃도 같아 입고 머리도 꽂게 매안져 있었다. 나도 웃고음을 매안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들판없었다. 조금 있거나 땀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고 왔다. 남국에 많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껍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게 깔렸다. 소녀는 혼내라 뻔뻔지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짧았던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듯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 했다. 맛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설이 비로소 눈에 띠었다. 곤데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설이.</p> <p>나는 아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련수련하는 기색이 들었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쉬인 소리도 들렸다. 펜찮다고 엄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나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촘에서는 멀식이니 맷 없어도 많이 먹으려느니 너스레를 놀더니, 슬며 적설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p> <p>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온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긴 것이 무난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감자기 수줍어겠니,</p> | <p>소녀 [11]</p> <p>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p> <p>2 소녀</p> <p>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훌가분해졌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점이 내 진위기로 아저씨를 되는 분의 집이다.</p> <p>나는 어둠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이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춤수를 따져 기미 동내외까지 학걸(학姐)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물어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웃매우새는 제법 색시풀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서문서 좀 벌__':
 집문 앞에는 보라기 누렇게 빼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이들을 뵙고 수인사 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알아 지체한 뒤에, 한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가 점심 대접을 하라는 것이다. 사랑방은 미衾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p> <p>소녀는 미리 준비를 하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웃도 같아 입고 머리도 꽂게 매안져 있었다. 나도 웃고음을 매안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들판없었다. 조금 있거나 땀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고 왔다. 남국에 많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껍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게 깔렸다. 소녀는 혼내라 뻔뻔지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짧았던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들판에 들어온 듯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 했다. 맛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설이 비로소 눈에 띠었다. 곤데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설이.</p> <p>나는 아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련수련하는 기색이 들었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쉬인 소리도 들렸다. 펜찮다고 엄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나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촘에서는 멀식이니 맷 없어도 많이 먹으려느니 너스레를 놀더니, 슬며 적설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p> <p>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온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긴 것이 무난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감자기 수줍어겠니,</p> |
|--|--|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90mm,
paperheight=260mm,
textwidth=135mm,
textheight=210mm,
centering }
```

<p style="text-align: center;">1 소녀</p> <p>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친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가분해 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마한 산 밑에 옥광총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람 길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들 되는 분의 길이다.</p> <p>나는 여동방학이 되어 길에 내려오면서 한 번씩은 이 길을 찾는다. 이 길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이 되는 소녀가 있다. 실상 혼수를 따져 가며 동네와까지 할 절처(別處)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티슈라. 내가 가면 여간 반기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있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기곤 했다. 소녀의 봄매어 웃매우새는 세법 색시들이 박하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시골서 중 벌침 있는가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쳐니로서의 애모를 갖추었고 절친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점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페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빼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빼고 수인사 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진나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진나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달달히 치워져 있고, 자지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고 소녀를 불러 했다.</p> <p>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웃도 강아 입고 머리도 꼽개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장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차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벅 진나방에서 유키 간 것이 둘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려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땅에게 일었다. 조급 있다가 빨은 노파에게 삶을 떠려 가지고 왔다. 담근에 맑은 민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행이 물이 놀고 있었다. 상자들은 간소하나 정갈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혼이와 벗번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혈脈한 인사를 낭기고 껌개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자를 빙드느고 뜯어내려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 했다. 맞은편 베모시로에 걸린 복통 적성이 비료소 눈에 띠었다. 곧때가 여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성이.</p> <p>나는 아듯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언가 수련수련하는 기색이 들었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편찮다고 멀리 말리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민국수도 혼에서는 별식이나 멀 없어도 많이 먹으려니 너스레를 놓더니 숙적 척심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p> <p>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마다지 아니했다. 척심 듣긴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들어서 나마다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감자기 수줍이잖아,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을 때 뒤를 훑듯 훑어본 나는 숨어서 만큼 대다보는 소녀의 뺨이 학실히 뿐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2 소녀</p> <p>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친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가분해 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마한 산 밑에 옥광총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람 길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들 되는 분의 길이다.</p> <p>나는 여동방학이 되어 길에 내려오면서 한 번씩은 이 길을 찾는다. 이 길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이 되는 소녀가 있다. 실상 혼수를 따져 가며 동네와까지 할 절처(別處)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티슈라. 내가 가면 여간 반기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있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기곤 했다. 소녀의 봄매어 웃매우새는 세법 색시들이 박하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시골서 중 벌침 있는가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쳐니로서의 애모를 갖추었고 절친이나</p>
--

4*6 배판 변2단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90mm,  
paperheight=260mm,  
textwidth=100mm,  
textheight=210mm,  
marginparwidth=35mm,  
marginparsep=5mm, }  
}
```

마진에 텍스트를 넣는다.	<p>I 소녀</p> <p>고개 마무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훌어들어진다. 이 마무터에서 보면 아트박한 산 밑에 유풍풀방초가집들이 들어온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닷 점이 내 전경이가로 이자씨벌 되는 분의 점이다.</p> <p>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점을 찾는다. 이 점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로, 열세 살 되는 누이뻘이 있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혼수를 따지거나 동네의까지 할 절칙(別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우라, 내가 기분 어떤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 소녀를 보아 좋았다고 불리 내에 인사를 시기로 했다. 소녀의 몸매와 옷매무는 제법 세련되어 박히어 기분이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장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절 입을 알아보기 누렇게 되어 있고, 한편 들에선 일본들이 보리로 빠져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은 들어가 이들을 셀 수 인사나 겪이 이런 이야기로 저런 이야기로 알아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절심 대접을 먹으라는 것이다. 사랑방은 미술관이, 일꾼들이 드는 데고 이 수선뿐이나, 건나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놨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놨다.</p> <p>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듯으로 웃도 같아고 머리도 짐에 매단지 있었다. 나도 유희장을 매단지며 대걸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나방에서 올라 간 것처럼 들립 않았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려니마시면서 오빠 점을 치워하고 면에 입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여 가지고 왔다. 담국에 받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밥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자람은 간소하고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손이나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수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편안한 인사를 남기고 꿈계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아있던 나는 상을 받아그라고 뜨거지 같아대로 자리에 옮겨야 했다. 맘은전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상이 비로소 눈에 뵙았다. 문대가 악한 물은 소녀의 분홍 적상이었다.</p> <p>나는 아듯한 호기심으로 자꾸 치우쳐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었인가 수련수련하는 기색이 들었다. 노파의 은은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웬만하고 엄마 말라운 말 같지도 했다. 그러니까 노파가 물을 엎고 들이 있다. 밀국수도 존에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려느니스레를 놓더니, 술락 적상을 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p> <p>상을 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으고, 으레 따라온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저설 들킨 것인 무언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암방에 숨어서 나타나</p>	<p>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감자기 수줍어졌다, 에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을 때를 훔쳤을 흥분된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p> <p>2 소녀</p> <p>고개 마무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훌어들어진다. 이 마무터에서 보면 아트박한 산 밑에 유풍풀방초가집들이 들어온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닷 점이 내 전경이가로 이자씨벌 되는 분의 점이다.</p> <p>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점을 찾는다. 이 점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로, 열세 살 되는 누이뻘이 있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혼수를 따지거나 동네의까지 할 절칙(別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우라, 내가 기분 어떤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 소녀를 보아 좋았다고 불리 내에 인사를 시기로 했다. 소녀의 몸매와 옷매무는 제법 세련되어 박히어 기분이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장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절 입을 알아보기 누렇게 되어 있고, 한편 들에선 일본들이 보리로 빠져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은 들어가 이들을 셀 수 인사나 겪이 이런 이야기로 저런 이야기로 알아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절심 대접을 먹으라는 것이다. 사랑방은 미술관이, 일꾼들이 드는 데고 이 수선뿐이나, 건나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놨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놨다.</p> <p>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도량으로 웃도 같아고 머리도 짐에 매단지 있었다. 나도 유희장을 매단지며 대걸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나방에서 올라 간 것처럼 들립 않았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려니마시면서 오빠 점을 치워하고 면에 입었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여 가지고 왔다. 담국에 받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밥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자람은 간소하고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손이나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수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편안한 인사를 남기고 꿈계 문을 닫고 나갔다.</p> <p>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아있던 나는 상을 받아그라고 뜨거지 같아대로 자리에 옮겨야 했다. 맘은전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상이 비로소 눈에 뵙았다. 문대가 악한 물은 소녀의 분홍 적상이었다.</p> <p>나는 아듯한 호기심으로 자꾸 치우쳐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었인가 수련수련하는 기색이 들었다. 노파의 은은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웬만하고 엄마 말라운 말 같지도 했다. 그러니까 노파가 물을 엎고 드렸다. 웬만하고 엄마 말라운 말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노파가 물을 엎고 드렸다.</p>
---------------	--	--

memoir 클래스

```
\documentclass[twoside,showtrims,  
a4paper]{xoblivoir}  
  
...  
  
\settrimmedsize{260mm}{190mm}{*}  
\setttypeblocksize{210mm}{135mm}{*}  
\setlrmargins{*}{*}{1.0}  
\setulmargins{*}{*}{1.0}  
  
%판면을 용지 중앙에 위치  
  
\setlength\trimtop{\stockheight}  
\addtolength\trimtop{-\paperheight}  
\setlength\trimedge{\stockwidth}  
\addtolength\trimedge{-\paperwidth}  
\settrims{.5\trimtop}{.5\trimedge}  
  
\checkandfixthelayout
```



1 소내

고개 마루터에 방식소나부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훈기분에 젠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박한 산 밑에 올망중랑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다 점이 내 전의로 아져찌_be 되는 분의 점이다.

나는 어물 방학이 되어 점에 내보내오면 한 번역은 이 점을 찾았다. 이 점에는 나에게 한 살 아래인,

얼세 살 되는 누이를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지기 힘들내외까지 할 절칙(切隙)도 아니

지만 서로 가깝게 사내는 티수라. 내가 기면 어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나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나의 끔비며 웃애무하는 재벌 세사풀이 박하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문서 좀 벌침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저녁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젊어가 어른들을 편고 수인사 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알아

자체한 뒤에 안 건내밖으로 안내해 않았다. 점심 대접을 먹으려는 것이니 사람방은 미술이며, 일본문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내밖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방히 위치해 있고, 자리를 깔려 있었다.

이주마니는 오빠에게 내나 인사이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

소나는 미리 끔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후우,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를 때만지며 대형으로 아주 나와 인사를 했다. 캐런보더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내방

에서 옮겨 간 것이 들립았었다. 아주마니는 일본들을 보살피려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고 떨어져

왔다. 조카마다가 부모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미국에 받은 밀국수다. 오이소바와 호

박눈법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마은 간소하나 정갈하고 깔끔했다. 소나는 이와 더불어 못하지만

많이 달고 친숙한 나치역은 소스에 짙말하고 인사를 낚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장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아온 듯자리로 자리들 옮겨가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본장 적설이 비로소 눈에 와였다. 본래가 약간 불온 소녀의 본장 적설이.

나는 아릇한 호기심으로 자주 저녁까지 나갈 수 없었다. 벌써에 무엇인가 수수무언하는 기색이

들었다. 노파의 온갖한 웃을 적어 소리도 들었다. 뻘쭘하고 얼려 말리는 말 카드였다. 그러더니 노

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일부러 도운해는 멀었으나 앗 없어도 많이 얹으려니 너스레를 떠나니,

술적 적들은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상을 입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나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을 들인 것이

무언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을 때 아주마니는 오빠가 아니라고 소나를 불렀다. 그러나 소나

는 인방에 솔직히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마니는 “감자기 수줍이겠지, 에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미彘는 기다렸으나 이내 소나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을 때 뒤를 훑었 흐稚분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나의 뺨이 확실히 뿐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2 소너

고개 마루터에 방식소나부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훈기분에 젠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박한 산 밑에 올망중랑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다 점이 내 전의로 아져찌_be 되는 분의 점이다.

나는 어물 방학이 되어 점에 내보내오면 한 번역은 이 점을 찾는다. 이 점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를 되는 소나가 있다거나. 실상 촌수를 따지기 힘들내외까지 할 절칙(切隙)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사내는 티수라. 내가 기면 어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나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나의 끔비며 웃애무하는 재벌 세사풀이 박하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문서 좀 벌침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저녁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기 시작했다. 점 분 앞에는 보라가 누렇게 페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본문이 보리를 허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끌어가 어른들을 편고 수인사 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알아 지체한 뒤에 안 건내밖으로 안내해 않았다. 점심 대접을 먹으려는 것이니 사람방은 미술이며, 일본문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내밖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방히 위치해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마니는 오빠에게 내나 인사이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

소나는 미리 끔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유토 같아 일고 미리도 꼼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를 때만지며 대형으로 아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내방에서 옥기 강 것이 들립았었다. 아주마니는 일본들을 보살피려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고 떨어져 있었다. 조작 있다가 맨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미국에 받은 밀국수다. 오이소바와 호박눈법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마은 간소하나 정갈하고 깔끔했다. 소나는 이와 더불어 못하지만

이주마니는 오빠에게 내나 인사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

남장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아온 듯자리로 자리들 옮겨가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본장 적설이 비로소 눈에 와였다. 본래가 약간 불온 소녀의 본장 적설이.

나는 아릇한 호기심으로 자주 저녁까지 나갈 수 없었다. 벌써에 무엇인가 수수무언하는 기색이 들었다. 노파의 온갖한 웃을 적어 소리도 들었다. 뻘쭘하고 얼려 말리는 말 카드였다. 그러더니 노

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일부러 도운해는 멀었으나 앗 없어도 많이 얹으려니 너스레를 떠나니,

술적 적들은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상을 입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나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을 들인 것이 무언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을 때 아주마니는 오빠가 아니라고 소나를 불렀다. 그러나 소나는 인방에 솔직히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마니는 “감자기 수줍이겠지, 에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미彘는 기다렸으나 이내 소나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을 때 뒤를 훑었 흐稚분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나의 뺨이 확실히 뿐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3 소너

고개 마루터에 방식소나부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훈기분에 젠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아트박한 산 밑에 올망중랑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바다 점이 내 전의로 아져찌_be 되는 분의 점이다.

나는 어물 방학이 되어 점에 내보내오면 한 번역은 이 점을 찾는다. 이 점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를 되는 소나가 있다거나. 실상 촌수를 따지기 힘들내외까지 할 절칙(切隙)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사내는 티수라. 내가 기면 어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나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나의 끔비며 웃애무하는 재벌 세사풀이 박하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문서 좀 벌침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저녁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기 시작했다. 점 분 앞에는 보라가 누렇게 페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본문이 보리를 허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끌어가 어른들을 편고 수인사 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알아 지체한 뒤에 안 건내밖으로 안내해 않았다. 점심 대접을 먹으려는 것이다. 사람방은 미술이며, 일본문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내밖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방히 위치해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마니는 오빠에게 내나 인사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 (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Villard de Honnecourt)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 (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Villard de Honnecourt)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순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꼴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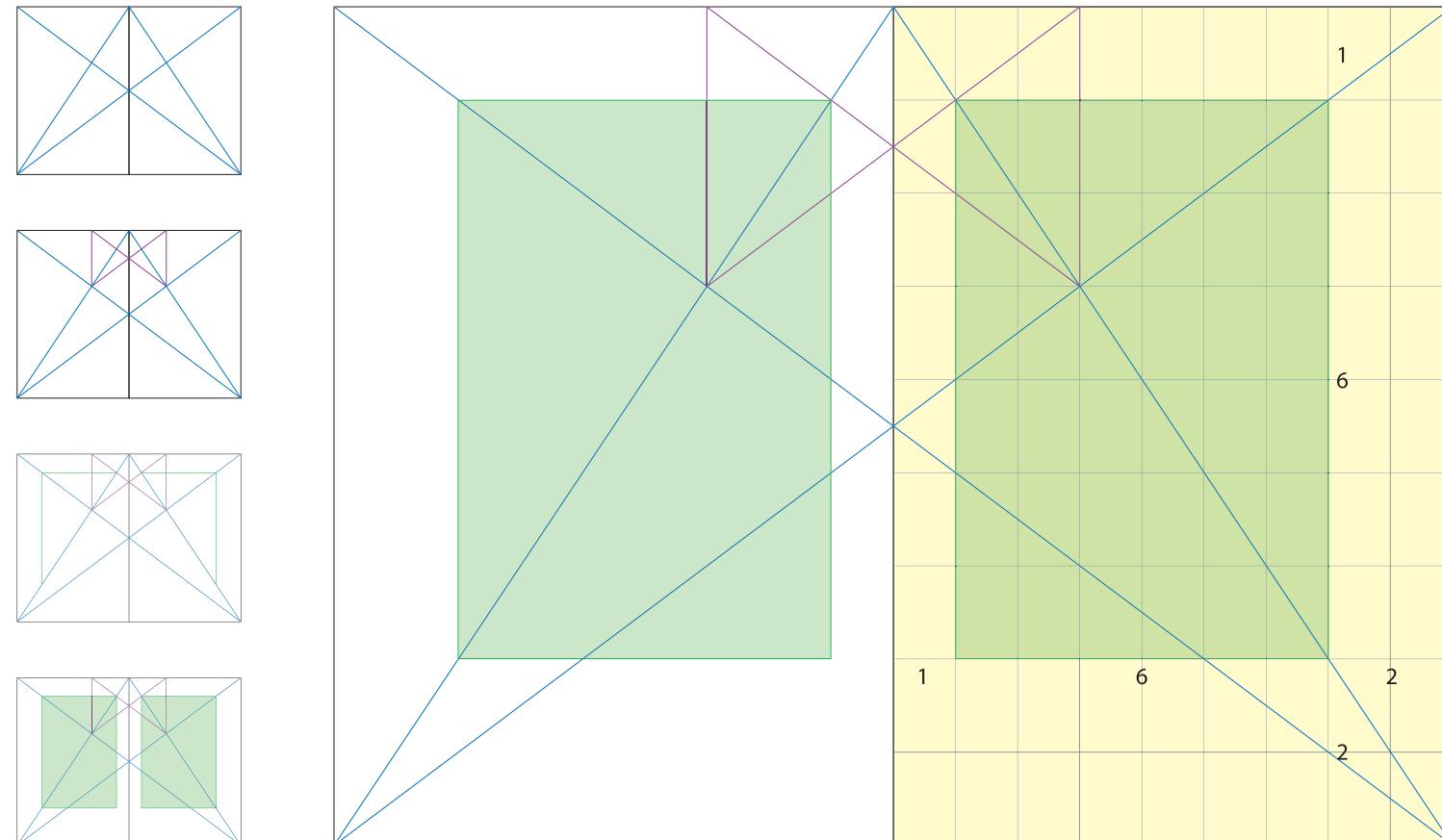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 (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 (Villard de Honnecourt)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	정용욱	비율 (%)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중고딕,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 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 x ,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Xi\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	정용욱	비율 (%)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중고딕,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 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 x ,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Xi\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	정용욱	비율 (%)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중고딕,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 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 x ,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La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	정용욱	비율 (%)
윤명조	32.2	윤명조 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중고딕,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 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 x ,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La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원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fontsize{10pt}{16pt} \selectfont
\setlength\baselineskip{14pt}
% 이 명령을 직접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renewcommand{\baselinestretch}{1.5}
\linespread{1.0} % \selectfont
% 본문 중간에 이 명령을 내릴 때 \selectfont를 같이 써준다.
\linespread{1.333} % ko.TeX의 기본값
\linespread{1.5}
```

- 커닝(kerning): 영문에서 이웃한 한쌍의 글자가 만나는 간격 정보

커닝이 적용되었을 때	AVIATION	Toyota	Valley	World
커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AVIATION	Toyota	Valley	World

- 자간

```
\usepackage{dhucs-interword} \interhchar{0pt}
```

- 어간

```
\usepackage{dhucs-interword} \interhword[.6] {.475} {.1} {.1}
```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Tip 1. \allowdisplaybreaks

Tip 2. 수직정렬 위치 구분자

&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당부 말씀

수식 편집

Tip 1. \allowdisplaybreaks

2 오일러의 공식

복소수를 가르쳤다. 그의 기초 대수학 교재인 『대수학 원론』(Elements of Algebra)에 보면 교재의 거의 맨 앞부분부터 복소수를 도입하고 있고 교재 전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테일러 급수에 따라 실수 범위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e^x &= 1 + x + \frac{x^2}{2!} + \frac{x^3}{3!} + \cdots = \sum_{n=0}^{\infty} \frac{x^n}{n!} \\ \cos x &= 1 - \frac{x^2}{2!} + \frac{x^4}{4!} - \frac{x^6}{6!} + \cdots = \sum_{n=0}^{\infty} \frac{(-1)^n}{(2n)!} x^{2n} \\ \sin x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cdots = \sum_{n=0}^{\infty} \frac{(-1)^n}{(2n+1)!} x^{2n+1} \end{aligned}$$

이때 x 가 복소수일 때에 앞의 무한급수를 각각의 항수로 정의한다. 그러면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quad + \frac{(iz)^7}{7!} + \frac{(iz)^8}{8!} + \c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 \right)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 \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2 오일러의 공식

복소수를 가르쳤다. 그의 기초 대수학 교재인 『대수학 원론』(Elements of Algebra)에 보면 교재의 거의 맨 앞부분부터 복소수를 도입하고 있고 교재 전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테일러 급수에 따라 실수 범위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e^x &= 1 + x + \frac{x^2}{2!} + \frac{x^3}{3!} + \cdots = \sum_{n=0}^{\infty} \frac{x^n}{n!} \\ \cos x &= 1 - \frac{x^2}{2!} + \frac{x^4}{4!} - \frac{x^6}{6!} + \cdots = \sum_{n=0}^{\infty} \frac{(-1)^n}{(2n)!} x^{2n} \\ \sin x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cdots = \sum_{n=0}^{\infty} \frac{(-1)^n}{(2n+1)!} x^{2n+1} \end{aligned}$$

이때 x 가 복소수일 때에 앞의 무한급수를 각각의 항수로 정의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quad + \frac{(iz)^7}{7!} + \frac{(iz)^8}{8!} + \c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end{aligned}$$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begin{aligned}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 \right)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 \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Tip 2. 수직정렬 위치 구분자 &

```
\begin{align} \overline{g}(\mathcal{A}(X,Y),V) = & \overline{g}(\operatorname{nor}\overline{\nabla}_{XY}V) \\ =&\frac{1}{r}\overline{g}(\overline{\nabla}_XY,P) \end{align}
```

$$\bar{g}(\mathcal{A}(X,Y), V) = \bar{g}(\operatorname{nor} \bar{\nabla}_X Y, V) \quad (1)$$

$$= \frac{1}{r} \bar{g}(\bar{\nabla}_X Y, P) \quad (2)$$

```
\begin{align} \overline{g}(\mathcal{A}(X,Y),V) = & \overline{g}(\operatorname{nor}\overline{\nabla}_{XY}V) \\ =&\frac{1}{r}\overline{g}(\overline{\nabla}_XY,P) \end{align}
```

$$\bar{g}(\mathcal{A}(X,Y), V) = \bar{g}(\operatorname{nor} \bar{\nabla}_X Y, V) \quad (3)$$

$$= \frac{1}{r} \bar{g}(\bar{\nabla}_X Y, P) \quad (4)$$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 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quad + \frac{(iz)^7}{7!} + \frac{(iz)^8}{8!} + \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right)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quad + \frac{(iz)^7}{7!} + \frac{(iz)^8}{8!} + \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right)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 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begin{aligned}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quad + \frac{(iz)^7}{7!} + \frac{(iz)^8}{8!} + \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dots \right) \\ &\quad + i \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dots \right) \\ &= \cos z + i \sin z \end{aligned}$$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당부 말씀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_EXnicia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_EXnicia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_EXnicia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_EXnicia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